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공연축제’ 23일~7월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넘치는 에너지 화려한 춤사위... 축제가 시작된다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공연축제’가 23일(오후 6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김영순 무용단의 ‘Here Now so long’과 ‘쑈 SSOOT’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오는 7월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무용·타악·국악·관현악 등 모두 8개 작품이 시민들을 만난다. 23~24일 개막공연 무대에 서는

영상, 댄스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미가엘 아나야 등 뉴욕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3명의 무용수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미국 공연 당시 넘치는 에너지와 매력적인 새롭게 도전한 춤사위로 현대무용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을 받았다.

‘쑈 SSOOT’은 김영순씨가 무용 인생 30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천정

무용·타악·국악·관현악 등 8개 작품 무대에

김영순 무용단 ‘Here Now so long’ 첫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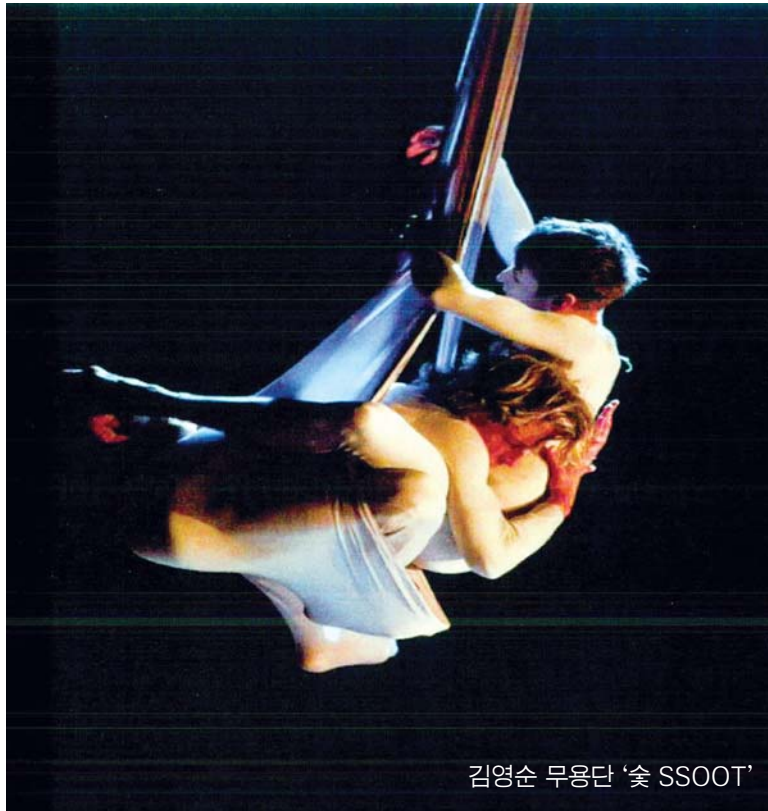
김영순씨는 광주 출신으로 현대 춤의 메카 뉴욕에서 3개의 댄스 페스티벌을 주관하며 현재 무용계를 선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첫 작품 ‘Here Now so long’는 기타리스트 마르코 카렐리의 어코스티크 및 전자 기타 라이브 연주와 비디오

에 설치된 천과 벨트에 매달려 무용수들이 역동적인 춤사위를 보여준다. 27일(오후 8시)에는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춤추는 관현악’이 시민들을 만난다. 기존 국악관현악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으로 단원들이 연주를 하며 안무까지 곁들이는 독특한 컨셉이다. 기존 민요의 선율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을 통해 신선함을 더했다.

지역 참가팀은 타악그룹 얼쑤의 ‘인수화풍’(27일 오후 7시30분)은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명난 작품이며 공모를 통해 참여하는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7월 3~4일 오후8시)은 현대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렸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7월 6~7일 광주문화회관)는 고전 발레의 대표



김영순 무용단 ‘쑈 SSOOT’

작으로 김지영 등 정성급 발레리나의 열연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번 축제의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안은미 무용단의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는 7월 10일~12일 공연된다. 지난해 에디버러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 받아 찬사를 받았던 작품으로 ‘바리데기’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국악연주와 젊은 국악인들의 소리, 8명의 무용수가 어우러져 독특한 감동을 전한다.

놀이패 ‘신명’의 ‘연젠가 봄날에’(7월 13~14일)는 5·18 민주화쟁 30주

년을 기념해 제작한 작품으로 전통 탈춤과 굿의 구조를 빌려왔다.

폐막공연작 ‘님을 위한 행진곡’-자스민 광주 2012’는 5월 민주항쟁과 붉은 유니폼, 해태타이거즈의 만남을 통해 관객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유쾌한 퍼포먼스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5000원, 1만원, 백조의 호수 8만8000원~2만2000원, ‘백조의 호수’를 제외한 7편을 관람할 수 있는 ‘프리패스 카드’ 7만원. 문의 062-670-74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소녀소녀합창단 23일 올 첫 공연

“광주의 빛나는 꿈을 노래합니다”

‘Wish to fly’ ‘알을 품은 도시’ 등 광주시립소녀소녀합창단(단장 이어진)이 최근 선보여온 작품들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존 합창단의 공연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작품은 관객들이 또 다른 무대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올해 첫 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공연 타이틀은 ‘HEALING 광주’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 기운으로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는 광주의 빛나는 꿈에 대한 이야기다.

첫 스테이지 ‘당신을 위한 노래’는 32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이다.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인상적인 ‘아름다운 사람’,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아련함을 보여주는 ‘얼굴’이 불려진다.

‘그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두번



째 스테이지 ‘광주의 노래’는 5월의 노래 1, 2, ‘상록수’, ‘님을 위한 행진곡’, ‘타는 목마름’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스테이지 ‘HEALING 광주’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린다. ‘감사해요’와 창작곡 ‘Dont cry’가 연주되며 창작곡 ‘아리랑’이 초연된다.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선율의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하며 ‘광주

는 빛’이 대미를 장식한다.

노래 이외에도 의상, 소품, 무대 등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는 LED를 활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인 다.

이어진 단장과 기존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연출자 박진수, 음악감독 김성광씨가 다시 의기투합했다. 티켓 가격 1만원·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솔리스트 앙상블’

25일 정기연주회

광주솔리스트 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지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동수정(이화여대 등 출강), 바이올리니스트 김도연(스콜피아 오케스트라 악장), 비올리스트 임요섭(서울시립교향악단원), 첼리스트 오승석(광주시립교향악단원)씨로 이루어진 광주솔리스트 앙상블은 창단후 다양한 공연을 진행해 왔다.

레퍼토리는 멘델스존의 ‘피아노4중주 3번’,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50-위대한 예술가의 추억’이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



동수정

‘아트광주12’ 갤러리 81곳 참여

중동지역 최초 참여... 해외 갤러리 33곳

아트광주조직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9월(5일~9일) 열리는 ‘아트광주12’에 해외 33개 갤러리 등 81개 갤러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참여 갤러리(75개)와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사치(Saatchi) 등 해외 유명 갤러리와 뉴욕 APT(Artist Pension Trust·작가연금신탁)를 비롯, 국제아트페어의 위상에 어울릴만한 국내외 갤러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게 조직위 설명이다.

특히 아시아 미술 시장 확대 등의 분위기를 반영, 베이루트에 있는 중동지역 갤러리(The Running Horse Contemporary Art Space)가 최초로 참여하는가 하면, 지난해에 비해 중국·일본·중동·인도·동남아시아 갤러리의 참여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게 특징이다.

조직위는 이번 아트광주에서는 아시아 현대미술의 큰 흐름을 주도하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서울(24개)을 비롯, 대구·부산·광주 등 지역 24개 화랑이 아트광주에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한국의 대안공간과 외국 비영리공간을 소개하는 ‘뮤지엄 아틀렛’도 마련된다. 이번에는 쿤스트독(서울), 더 프라미스(서울), 대안공간 마루(창원) 등 지난해 참여하지 않았던 공간들이 새롭게 참여, 한국 대안공간들의 다양한 실험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특별전도 진시영·최정화 등 국내 기성작가 10명의 작품과 젊은 신진 작가 10명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특별전을 기획하는 한편,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트마켓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 프로그램, 비엔날레 참여작가와 아티스트 토크 등도 부대 행사로 기획된다.

이처럼 아트디렉터는 “이번 아트광주12는 새로운 미술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 갤러리들이 내놓는 질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데다, 전문가들과의 토크 프로그램으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만의 차별화된 아트페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립무용단, 예술의 전당 무대에

24일 대한민국발레축제, ‘성웅 이순신’ 공연

광주시립무용단(단장 김유미)이 서울 무대에 선다.

무용단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발레축제에서 창작발레 ‘성웅 이순신’을 공연한다.

대한민국발레축제는 발레 예술의 균등 발전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행사로 올해는 지난 11일부터 18개 단체가 공연을 펼쳐 왔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성웅 이순신’은 시립무용단의 대표작 레퍼토리다. 지난 1992년 문예회관 개관을 맞아 ‘우수영의 원무’라는 타이틀로 초연됐던 ‘성웅 이순신’은 지금까지 수차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왔다.

모두 2막 4장으로 구성된 ‘성웅 이순신’은 백의종군하는 이순신, 백성들의 합성과 강강술래, 노랑해전의 승전보와 이순신의 죽음, 그리고 애

도의 강강술래를 60여명의 출연진들이 아름다운 몸짓으로 보여준다.

무용단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최근 개관한 여수 ‘예술마루’ 무대에도 선다. 여수시의 공식초청을 받은 무용단은 오는 7월21일 여수 시민과 엑스포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웅 이순신’ 전막 공연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치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